

## 조선대 '끝없는 내분'...총장 선출 vs 복귀 이견 첨예

조선대학교가 전임 총장 업무 복귀와 차기 총장 선출 문제를 놓고 학교구성원들이 사분오열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내분에 휩싸였다. 총장 선출과 학내 협의구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교수협의회도 두 쪽으로 갈려 내분이 심화되고 있다.

"총장 해임은 부당하다"는 교육부 소청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4일부터 업무 복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강동완 총장은 최근 답화문을 통해 "총장직에 공식복귀한 뒤 정년인 내년 2월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년은 내년 2월말이지만 총장 임기는 9월22일까지여서 임기를 7개월 앞당겨 중도 사퇴하겠다는 취지다.

명예회복과 대학 안정 차원에서 우선 공식 복귀한 뒤 차기 총장의 조속한 선출을 위해 중도 사퇴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강 총장은 "교육부 교원소청 심사에서 총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한 것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그 동안의 학내 갈등 치유와 대학안정화를 위해 책임을 다한 후 명예롭게 마무리하라는 뜻으로 새기고 있다"며 "이를 위해 업무 복귀 후 2월말 사임, 법인이사회의 소청 결과 즉각 수용, 대학 행정 교란세력 척결 등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전제조건 없이, 사퇴 시한을 정한, 강동완 총장의 한시적 복귀를 용인하는 것이 혼란을 수습하는 길

“내년 2월말 사임” vs “해임 상태, 9월 총장 선출”

교평 “총장, 조건부 복귀 vs 밀실 합의, 말바꾸기”

동문·재학생 “조롱거리, 부끄러워 고개 못들어”

이러며 강 총장의 한시적 복귀를 공식적으로 찬성했다.

교평은 "법적, 행정적으로 강 총장의 복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결론적으로 조속한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조속한 강 총장의 자진 사퇴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총장의 중도사퇴와 조속한 차기 총장 선출 ▲임시이사회 퇴진과 법인 정상화 ▲외부 불순세력 척결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법인 이사회는 곧바로 반박했다.

법인은 이사장 명의로 '대학 구상원칙 드리는 글'을 통해 "소청심사 결정은 행정적인 사법작용의 일종으로 처분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지난주 소청심사위 판결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대 교원의 자격, 복무, 신분 보장은 공무원인 국·공립 교원과 동일 보장하고 있지만 사립대 교원의 임용행위는 사법상 고용계약"이라며 "법인 이사회는 조선대

총장의 사고에 따라 홍성금 총장직 무대리를 지정했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장의 임명권과 관련해 다른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구성원 여러분은 현재 대학의 행정체계에 따라 행정처리가 이뤄지도록 민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내 최고 협의기구인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와 혁신위원회는 법인이사회가 제시한 제17대 총장 선출방안 제출시한인 8월10일에 맞춰 지난 24일 차기 총장 선출 방안 마련을 위한 입장을 공고했다. 임시이사 체제인 조선대의 총장 선출 방식 결정권은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총동맹회, 총학생회 등 4차 협의체인 대자협에 있다.

1차 토론회(7월9일 또는 10일)에 이어 각 단위별 내부 의견(7월10~22일), 2차 토론회(7월23일 또는 24일)를 거쳐 8월2일 선출방안을 확정할 뒤 필요할 경우 8월6일 또는 7일에 추가 토론회를 열고 8월9일 최종방안을 법인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9월29일 개교기념일 이전에 차기 총장을 선출하겠다는 게 이사회와 대자협, 혁신위의 통일된 의견

이다. 총장 선거에서 최대 투표권을 쥐고 있는 교수협의회는 심각한 내분이다.

현 집행부의 강 총장 '조건부 복귀' 주장에 대해 이봉주 전 교평 의장은 A4 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자율개선행사에서 탈락한 후 강 총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거취를 대자협에 맡겼고 대자협은 대학안정을 위해 올해 2월말까지 총장 임기를 한정하고 교평 집행부는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농

성까지 벌였는데 이제 와서 총장 복귀를 제안해 당혹스럽기 그지 없고, 밀실 합의에 다름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사회는 물론 각 단위의 사전협의도 없이 180도 다른 입장을 보이는데 대해 교평 집행부는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8년 직전 총장 선거 기준으로 대자협 4개 단위별 선거권은 교수 76%, 정규직 직원 13%, 총화 7%, 총동맹회 3% 순이다. 교평의 분열

은 차기 총장 선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조선대 한 동문은 "7만2000여 지역민들의 성원으로 설립된 숭고한 민립대학이 이런 지역 사회 조롱거리가 됐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한탄했다.

총학생회 한 관계자도 "신뢰를 잃은 총장에게 학교를 맡길 수 없는 노릇"이라며 "사과 한 마디 없다가 갑자기 복귀하려 한다"며 강 전 총장 퇴진을 촉구했다.

조인호 기자



구례 섬진강둑방길에 태양담은 해바라기 활짝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뒷길로 이어진 섬진강 둑방길에 태양담은 황금색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있다. 5500㎡ 규모로 조성된 해바라기 단지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곳이었지만 지난해 구례군이 해바라기를 식재했다.

### 장하연 광주경찰청장·김남현 전남경찰청장 내정

경찰청, 인사 단행...목포 문태고·광주 금호고 출신



장하연(53) 경찰청 정보국장 김남현(55) 자치경찰추진단장이 각각 광주와 전남경찰청장으로 내정됐다.

경찰청은 2일 전보와 승진 인사를 단행하고 장하연 국장과 김남현 추진단장을 각각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장으로 임명했다고 밝

혔다. 장 신임 광주청장은 목포 문태고등학교와 경찰대학(57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89년 3월 경위로 경찰 복무를 시작했으며 2009년 총경 승진한 뒤 광주청 정보과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곡성경찰서장,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경찰청 정보국 정보4과장, 서울 성동서장을 역임했으며 2015년 경무관 승진 뒤 전주안

산서장, 대통령비서실(국정상황실) 등에서 파견 근무했다.

지난해 치안감 승진 이후 경찰청 정보국장을 역임했으며 이번 인사를 통해 광주청장으로 내정됐다.

김 신임 전남청장은 광주 금호고, 경찰대학(2기) 행정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경찰대학 경찰학과장과 강진경찰서장, 경찰대학 지방이집추진단장, 서울 광진서장, 광주청 제1부장 등을 역임했다.

신봉우 기자

### 광주시 농성지하차도 단계적 개통

1~3단계 구간별 순차 개통...운전자 불편 지속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오는 4일부터 도로 구조개선을 위해 전면 폐쇄했던 서구 농성지하차도를 단계적으로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단대로 4일 오후 3시부터 화정사거리에서 서구청 방면 지하차도 한 방향을 개통한다.

이어 2단계로 7월 중순 서구청에서 화정사거리 방면으로 한 방향을 개통하고, 7월 말 3단계로 양방향을 전면 개통한다.

광주시는 농성지하차도를 이용하

는 운전자의 안전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광주지방경찰청과 협의해 각종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보완하고 있다.

오규환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장은 "그동안 교통 불편을 감수하고 이해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말, 야간작업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호남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 서남권 시대의 **新**취업! 무안

연꽃방죽

팽포야파

갯벌센터

노을길

무안군 새마을금고 이사장 박일상

무안군 대표 나기운

무안군 대표 박병섭

무안군 대표 나용석

무안군 대표 박영수

무안군 대표 최용주

무안군 대표 이석채

무안군 대표 배정섭

무안군 대표 문만식

무안군 대표 김몽기

무안군 대표 노은준

무안군 군수 김산

무안군 의장 이정운

무안군 지분장 김몽기

무안군 노은준

무안군 배정섭

무안군 문만식

무안군 김몽기

무안군 노은준